



달러換率在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당초3%로 잡았던 연말역제선은 이미 지난 4월 중순에 넘어섰고, 지난 6월11일 현재 換率은 5.26%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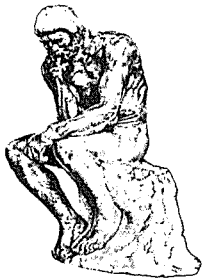
최근 換率在 이같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것은 근본적으로 國際通貨市場에서 美달러貨가 이례적인 強勢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독자적 바스킷에 따른 變動換率制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달러값이 오르면 換率도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두드러지게 부진한 輸出에 자극을 주어 보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貨에 대한 원貨의 값이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輸入은 줄어들어 國際取支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이 換率引上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들에도 불구하고 換率上昇이

---

## 換率在 油價引上을 무체질하고 있다

---



가져오는 몇가지 부작용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다. 우선 換率在 오르면 物價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추산으로는 換率在 10% 오르는데 따라 物價는 4~5% 가량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換率在 오른다고 할때 年率로는 10% 정도 오를 것으로 봐야하는데 그렇게 될경우 換率 하나만으로도 物價를 5~6% 올려놓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換率上昇은 油價引上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80년부터 換率은 国内油價上昇의 主要因으로 등장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변동환율제가 처음 실시된 80년에는 換率在 35.7%가 상승하여 51%의 油價引上 要因으로 작용했고, 또 81년에는 換率在 4.8%상

年度別 油價上昇要因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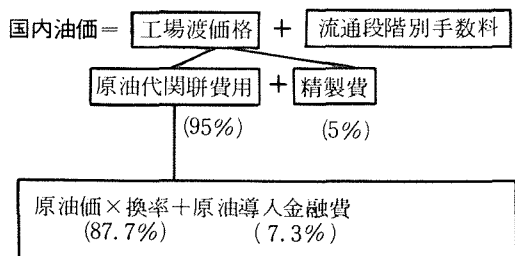
区 分	79 末	80 末			81 末		
		金 額	上 昇 率	油 價 引 上 要 因	金 額	上 昇 率	油 價 引 上 要 引
原油代 (\$ / B)	25.41	38.43	51.2%	48.2%	41.07	6.9%	6.5%
換 率 (원 / \$)	485	658.3	35.7	51	690	4.8	4.7
精製費 (원 / B)	767	1,648	115	6.7	4,518	174	10.7
計 (원 / B)	13,089	26,948		105.9	32,855		21.9

註：原油導入金融費는 精製費에 包含

승, 결국 4.7%의 油價引上要因으로 작용했다.

현재의 油價体制에서 換率이 10% 오를 경우 国内油價引上要因은 9.2%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国内油價는 크게 나누어 原油관련비용과 精製費로 나눌 수 있고, 또 原油관련비용은 原油費와 原油도입금융비로 나누어진다. 原油費는 船腹引渡價格(FOB), 輸送費(産油国에서 우리 나라까지 실어오는 運賃),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附帶費(방위세, 무역특계자금, L/C관련비용등) 및 基金(안정기금 0.7\$/B, 비축기금 1.5\$/B)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銀行에 내는 돈이든 稅務당국에 내는 돈이든 原本 金額 달러貨의 몇%등으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納付日의 換率로 평가되고 있다.



- 原油價; 平均導入原油價
- 原油導入金融費 및 精製費: 精油5社加重平均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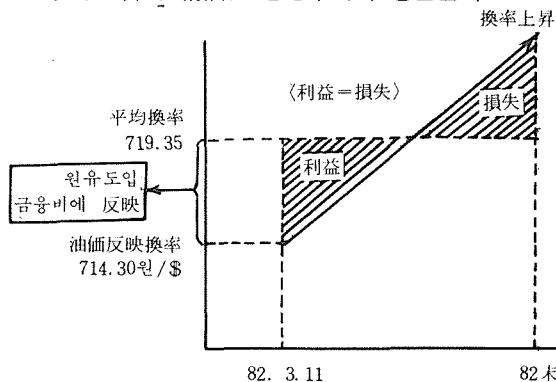
따라서 換率은 国内油價算出時 原油代에 곱하여 우리 나라돈으로 표시한 原油代를 산출하는 구실과 精油社가 유전스를 사용하는데 따른 原油導入換差損 발생의 두가지 구실을 하고 있다.

油價는 앞으로 일정기간 받아야 할 石油製品價格이므로 이러한 油價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앞으로 一定期間동안의 平均換率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80. 1.29 油價調整時 환율을 예상환율로 반영, 미리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정부는 80. 8.24 油價조정時부터 계속 実績換率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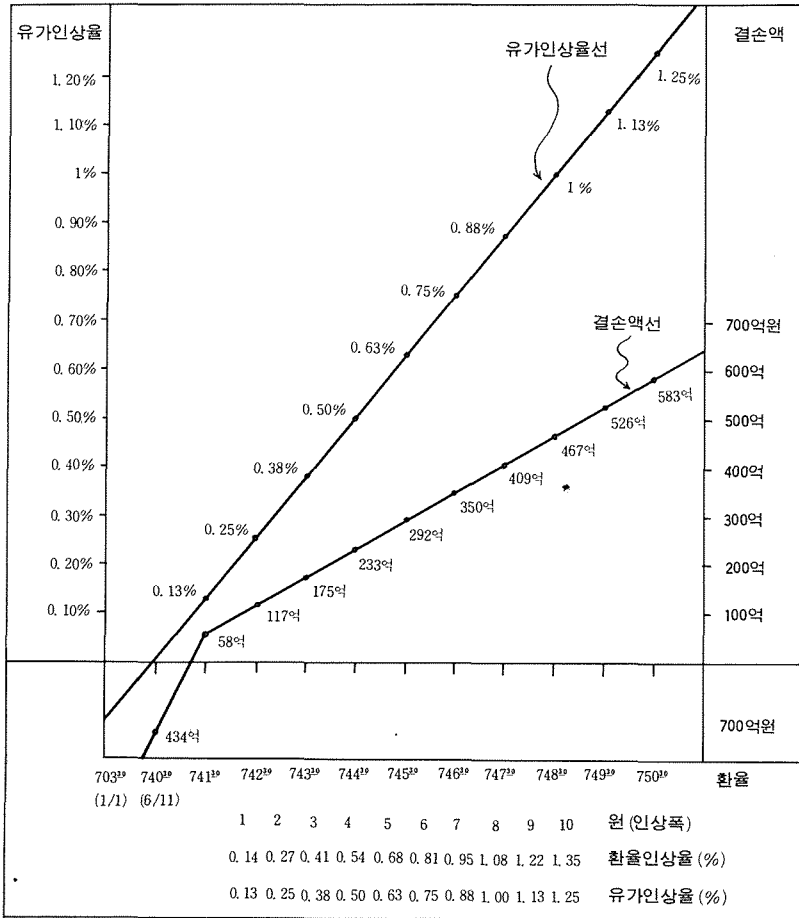
따라서 換率이 내릴 경우에는 精油社에 損差益을 안겨주지만, 換率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現상황에서는 精유사에 엄청난 損差損을 주고 있다.

換率上昇과 精油社 經營수지의 상관관계



지난 1월1일에 달러당 7백3원30 전하던 換率은 지난 6월11일 현재 7백40원30전으로 5.26%가 상승함으로써 精油社들은 이미 6백50억원의 換缺損이 발생했으며, 또 引上要因이 5%가 넘을 때까지 인상시기를 억제할 경우 총결손액은 2천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換率上昇과 精油社 경영수지의 상관관계



또 精油業界는 현재도 매일 상승하는 換率때문에 엄청난 결손을 내고 있다. 즉 換率이 1원 오를 때마다 58억원의 換差損이 생겨 0.13%의 油價引上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換率이 1% 상승할 때마다 4백6억원의 換差손이 생겨 0.89%의 油價引上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国内 精油業界는 경기회복지원에 따른 유류 소비의 부진과 가동률저하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지속적인 換率上昇에 따른 換差손으로 二重苦를 겪고 있다.

精油産業은 국민경제의 기초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공익성과 사회공헌성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채산성의 유지가 무시될 경우, 정유업체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때가 늦기 전에 정유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油價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또 현행 油價연동제도 개선, 油價를 환율변동에 연동시켜 정기적으로 소폭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油價연동제는 油價引上요인이 5%이상일 때에 조정하고 있으나 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볼때 결국 油價引上을 장기간 억제함으로써 정유사에 엄청난 결손을 안겨주고 있으며, 또 장래에 유가를 일시에 인상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다. 유가연동제의 보다 신축성 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金乾洽·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